투데이 칼럼

노동당 제8차 당 대회의 과제

정 복 규

논설위원 · 통일교육원

북한 노동당 제8차 당 대회가 최근 끝났다. 4년 8개월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재건'과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 등 향후 국정 방향에 맞춰 일선에서 뛸 사람들로 세대교체를 많이 했다.

박봉주가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나고 젊은 조직부장 출신 조용원을 앉혔다. 대회 참석 대표들도 전반적으로 젊어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로 집권 10년차를 맞는다. 그 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일했던 사람을 서서히 교체해왔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아예 자기 사람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위임통치설까지 나왔던 김여정은 서열이 낮아졌다. 정치국원 승진은 고사하고 기존 후보위원에서도 탈락해 중앙위원 서열 20위에 머물렀다. 그녀는 대남 강경 담화를 쏟아낸 것은 물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했다.

대남 전단을 뿌리고 북방한계선에서 군사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이를 보류시켰다. 김정은으로서는 국내 경제 때문에라도 남북 관계 물꼬를 터야 한다. 외무성에서 대남·대미 강성이던 최선희도 중앙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한계가 분명한데도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자급자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각오를 인민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향후 5개년 경제계획을 내놓겠지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지난 7차 당 대회에서 확정했던 전략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미달한 것은 제재 때문이다. 봄날이 와야 북한도 형편이 핀다.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9·19군사합의서 등은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다. 그들도 동계훈련은 하지만 거의 몸으로 때우는 식이다.

극기 훈련 수준이다. 북한은 석유조차도 간신히 조달하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탱크나 트럭 같은 걸 움직이려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최소한 남쪽에서 기동훈련이라도 하지 않으면 좋은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기동훈련을 하려면 미국 본토에서 미군이 와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 어차피 훈련하기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미국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올해 훈련을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아야 한다.

북한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대북 문제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최우선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볼 때 동북아가 갖는 의미는 서유럽보다 훨씬 크다.

바로 중국 때문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 초소가 주한미군이고 한반도다. 중국은 북중 관계를 돈독히 해 북한을 지렛대 삼아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 헤게모니 약화를 막으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할 때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경우 조급해진 북한은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이나 다탄두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을 향해 쏘는 것은 아니고 시험발사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협력은 북한도 절실히 바라는 문제다. 조류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것도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해에는 수해로 농사까지 망쳤다. 북한은 올 봄 초부터 보릿고개가 심각할 전망이다. 식량 지원도 필요하다. 남한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김정은 답방 추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 우리 정부가 먼저 작은 발걸음이라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문제는 더 이상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할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점이다. 미국을 설득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북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사설

과잉진료 무엇이 문제인가

과잉진료가 여전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권유대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과잉진료'부터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과잉진료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관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이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비까지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가 비싸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과잉진료에 있다.

물론 병원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면 보험사가 해당 병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지, 적정 진료 여부를 심사 의뢰할 수 있다.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권한은 비급여 부문까지 확대됐다. 과잉진료가 인정되면 병원은 과다 청구된 의료비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과잉진료 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잉진료만 막아도 실손보험료 과다 인상을 막을 수 있다.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 분야 부패가 여전히 심각하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진다.

현행 의료 분야 집중 신고 대상은 ▲사무장 병원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 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등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 운영한다. 이런 경우 신고에 따라 부당 이익이 환수되어야 한다.

의료 분야 부패와 공익 침해는 고질적 병폐다.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먼저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온고을팜협동조합 이대연 대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갈수록 농산물의 수입 비중이 커지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다. 가격 경쟁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농산 제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역할이 중요하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의 식품제조 가공업체 온고을팜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 창업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주력 상품은 콩두부이다.

온고을팜협동조합 이대연 대표는"사회적 가치는 서로 돕고 사는 사회, 서로 훈훈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온고을팜협동조합은 콩으로 식물성 영양 식품을 간편식으로 먹기 위해 개발을 진행했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지역 마트에서도 판매된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1월 사회적경제기업 9곳의 제품에 대해 지역 마트 11곳에 입점 판매를 위한 '사회적경제와 동네마트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을 통해 ▲온고을팜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을 동네마트에 입점하게 됐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또는 조직이다.

유형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자율적인 조직이다.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여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을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동네마트에 입점시키면 동네마트는 새로운 제품을 활용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판로가 확대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적극 발굴해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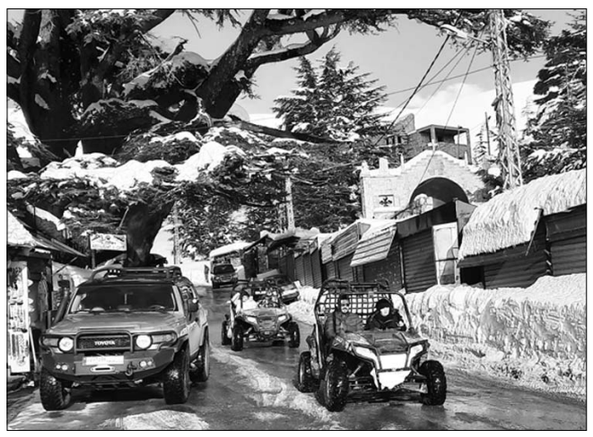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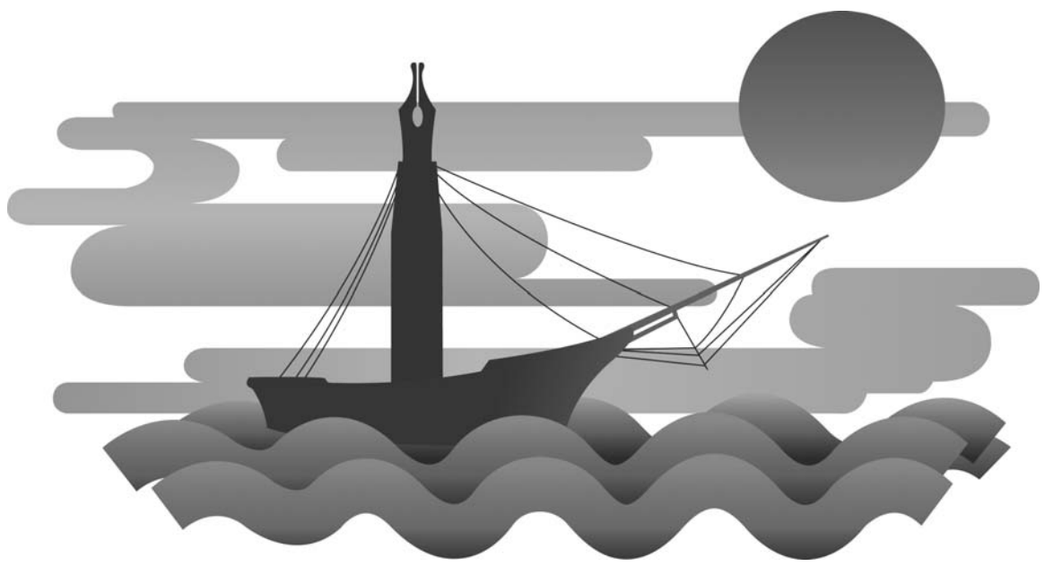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 '모국어의 날'

국제 모국어의 날인 21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언어 순교자 기념비 '샤히드 미날' 주변을 단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전신인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1952년 2월21일 벵골어를 공용어로 채택해 달라며 파키스탄을 상대로 대규모 시위를 벌여 4명이 숨졌다. 유네스코는 이를 기려 매년 2월21일을 '국제 모국어의 날'로 제정했다.

중동 국가 레바논에도 하얀 눈이



21일(현지시간) 레바논 북부 브샤리(Bsharri)에 폭설이 내린 뒤 한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ATV 4륜 바이크를 타고 눈 녹은 도로를 이동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